

새로운 업태 카페 샌프란시스코

커피에 가벼운 식사메뉴

미국 서해안 샌프란시스코는 “언덕과 앙개와 케이블”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다. 또한 미식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시내를 산책하면 조리샌드위치점, 크로와상이나 머핀 등의 전문점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이곳의 소비자층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 구별되는데 카페 샌프란시스코는 이곳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특선 커피에 스페셜한 메뉴”를

덧붙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1900년경부터 계속 있어온 “점내음식과 차가 가능한 점포”를 말한다.

카페 샌프란시스코(이하 CF)의 류는 19세기말 유럽 각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이 서해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아래 생긴 카페로 보헤미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등 각국 스타일의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100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자유발상의 히피가 탄생하기도 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도 약 500채의 CF가 있으며 각각의 점포가 독특하고 가벼운 식사메뉴를 손님에게 제공해 지역인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베이커리업자들은 시내의 관광안내를 보고 시푸드(SEAFOOD)와 명물인 사와브레드를 먹어보는 것이 정통코스일 것이다.

본지는 CF를 중심으로 메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업을 소개한다. 빵업계가 푸드서비스업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때 참고가 되길 바란다.

1. 모닝 카페

아침식사용으로 주택지에 있는 점포의 경우 6시 30분경부터 또 오피스가의 경우는 7시부터 오픈한다. 커피는 카페오레 또는 이탈리아 밀크가 들어간 아침식사용인 까페라테 등이 추가 된다. (에스프레소에 같은 양의 밀크를 넣은 것. 이와 관련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밀크, 거품낸 품을 3분의 1씩 섞는다) 메뉴는 주로 머핀, 크로와상, 테니쉬, 비스코티, 베이글 등에 아침샐러드가 견들어진다. 또 최근 인기상품으로 스콘, 단맛을 억제한 화이버(섬유질)를 넣은 건강쿠키 등이 있다.

2. 레트나이트 카페

모닝 카페와는 반대로 밤 10시경부터 영업을 하는 카페로 오페라나



영화관, 원도우쇼핑을 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에 많이 있다. 커피는 이탈리안 타입의 카페로마그라페에 메뉴는 키친, 포카치, 중동풍 빵을 사용한 샌드위치와 사와브레드 샌드위치가 많다.

3. 카페 베이커리

베이커리 독자에게 가장 흥미가 있는 업태로, 이름이 알려진 점포수만도 시내에 50여 점포가 있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1,2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베

이커리 상품에 대해 알아보면,

1) 이탈리아풍(포카치 등), 프랑스풍(크로와상 등)의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상품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여 고정객의 획득률을 높이고 있다.

2) 점내식사율이 높아 샌드위치류의 상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조리샐러드류가 데이나이트용으로 4~5종류 놓여 있다. 아침식사용 아이템도 각종 테니쉬나 머핀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각점포와 상품군을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템수는 한정된다.

4. 카페 레스토랑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는 업태로 샌드위치류에 샐러드와 스프류가 첨가된다. 레스토랑이 커피숍과의 다른 점은 메뉴의 한정, 근무처와 주거가 가까운 입지에 출점해 고정객화율을 높이는 것, 신문이나 주간지류를 점내에 두고 어디까지나 자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듯한 친근감을 연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5. 카페 멜리 및 카페 샌드위치

핫 앤드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류를 갖추고 있는 업태로 입지와 고객층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지만 공통된 점은 메뉴 가격대가 적정하다는 것. 이외 CF업태로서 카페 에스프레소 바, 게임 카페, 뉴스 스탠드 카페, 아이스크림 카페 등을 들 수 있다. CF업태가 갖는 공통적인 점은 점내 음식용 테이블 객석수가 15~30개 정도이며 대부분의 점포가 바깥에 테이블을 두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즐거운 기분으로 케이블카의 벨 소리를 들으면서 갖구운 크로와상과 카페오레를 먹을 수 있는 페적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1]